

보성서 만나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백민미술관-미술은행
기획전 '풍경을 빌려오다'

10월 31일까지 작가 23명 참여
한국화 현대적 해석 작품 등 선봬



▶이세현 작 'Between Red'

가을바람이 불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볼거리, 먹을거리 넘실대는 전남 지역 곳곳에는 다양한 미술관들도 숨어 있다. 보성도 마찬가지다. 대원사 가는 길에 자리한 보성군립백민미술관은 백민(百民) 조규일 선생이 자신의 작품과 소장하고 있던 국내외 작가 작품을 기증해 설립된 공간이다.

백민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처음으로 기획전을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을 구입, 보존, 대여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한국화, 서양화, 서예, 설치 등 32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풍경을 빌려오다'(10월31일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는 모두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1부 '해석된 풍경'에서는 전통 한국화의 정신은 잇되, 다양한 기법과 재료 등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한국의 산세, 제주의 오름, 독도, 안경의 '용유도원도' 등 다양한 소재로 작업했다.

2부 '풍경을 담다'에서는 우리의 자연환경, 개발이전의 도시풍경, 인공자연의 풍경 등을 소개한다.

자연의 한 장면을 회화로 혹은 사진으로 그대로 담아낸 작품들이다.

이세현 작가의 'Between Red'는 작품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제시한다. 멀리서 보면 한국의 산세와 가옥, 해변의 절경을 담은 듯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마치 한국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듯 쓰러져 가는 건물과 포탄의 흔적이 살아 있다.

'글자 산수'로 불리는 유승호의 작품도 보는 거리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흥미롭다. 글자를 반복해서 쓰거나 점을 찍으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의 작품은 멀리서 바라보면 보통의 산수화같지만 가까이서 들여다 보면 펜과 먹을 이용해 그린 글자와 점이 가득하고, 그 글자들이 산수화의 농담(濃淡)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밖에 생수병, 음료수병 등 일회용 용기에 그려진 자연과 산수 이미지를 동양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는 김신혜 작가의 '후지산', 철 지난 탕반 수영장을 화면에 담은 노충현의 '이월'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이다, 진현미, 임정규, 김형진, 김성오, 김신혜, 안경수 작가 등이 참여했다.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61-853-00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신혜 작 '후지산'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10주년 콘서트 5~6일 오가현서...사진찍기·그림 그리기 행사도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사진)가 5일과 6일 오가현에서 10주년 기념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길 나에게 묻다'이며, 어린 왕자의 시각으로 루트머지가 지나는 10년 나아가길 10년의 길 또는 우리 삶의 길을 표현한 공연이다.

공연에서는 어린 왕자에 대한 다양한 음악적 변주가 이루어진다. 공연 스토리는 어린 왕자 작가 정강임씨와 한경숙씨가 함께 나서 내적인 감성과 존재에 대한 물음을 기반으로 미디어아트와 함께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공연 작품을 선보인다. 작곡가 김소연, 박경훈, 최진경, 홍정의 씨도 이번 공연에 힘을 보탠다.

5일 오후 3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 왕자가 된 루트머지'가 펼쳐진다. 6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콘서트는 루트머지 여덟 번째 정기 공연의 형태로 펼쳐질 예정이다.

루트머지 연주자가 되어보는 블루 스크린 사진 체험과 판넬 사진찍기 체험, 홍자와 인절미, 행복 그림 그리기, 오가현 톨아보기를 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150년 된 한옥 오가현에서 만나는 이번 콘서트는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등이 단체관람을 원할 경우 무료관람을 신청할 수 있다.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는 우리 문화유산이 처한 현실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일반대중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우리 것,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예매는 네이버 예약(booking.naver.com/booking/5/bizes/101748?area=bns)에서 할 수 있으며 전석 3만원. 문의 062-444-076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성혜숙씨 '동굴도' 조선민화공모전 최우수상



광주에서 활동하는 민화작가 성혜숙(62·호남민화사랑회 부회장)씨가 제20회 조선민화공모전에서 병풍 부문 최우수상(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성씨는 국보 제 249호 '동굴도'(사진)를 그대로 재현한 작품으로 영예를 안았다.

조선민화박물관(관장 오석환)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00여점이 접수 됐으며 대상1점, 부문별 최우수상 3점 모두 88점이 입상했다.

동굴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모두 이르는 말로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해 붙은 이름이다. 효명세자 시절에 제작된 '동굴도'는 16폭 비단에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각 및 궁궐 전경을 조감도 식으로 세밀하게 묘사, 동굴의 옛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대상(상금 1500만원)은 서울 신미경씨가 출품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에 돌아갔다. 입상작 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강원도 영월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달항아리 5인전' 내일부터 17일까지



김기현 작

'저 무심하게 흰 것을/雪白이라거나 상아빛이라고 해야 할까/ 어질고 어진 둥근 것을/열사흘이나 열이레쯤의 달이라고 해야 할까/저 너그럽고 넉넉한 천연스러움을/그냥 자연이라고 해도 되겠다'(백자 달항아리에 부침)

시인 고재종이 '탁 트이고 환한 마음을 다하여/부처님이나 선비님의 한 득음을 했구나'라고 노래한 달항아리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백자 달항아리의 미학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가치를 가능케 하는 '달항아리 5인전'을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에서는 전통적 기법과 작가들이 창의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현대 달항아리 작품 1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달항아리는 희끄무레한 빛깔에 얼핏 보기에는 밋밋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특유의 풍성함은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준다.

참가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들어가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김기찬, 김기현, 김영설, 김이섭, 유영대 작가로 작품에는 각자의 개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문의 062-410-663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 100,000 / 디럭스 ₩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